

일본 근대 건축자산 철거에 대한 반대 운동 움직임

https://www.wmf.org/save-kagawa-gymnasium?utm_medium=website&utm_source=archdaily.com
<https://www.archdaily.com/996849/kenzo-tanges-famous-kagawa-national-gymnasium-in-japan-set-to-be-demolished>
<https://www.dezeen.com/2023/02/21/kenzo-tange-kagawa-prefectural-gymnasium-demolition/>

일본 다카마쓰(高松)시가 가가와현립체육관을 철거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대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가가와현립체육관은 프리츠커 수상자이기도 한 일본의 건축가 단게 겐조(丹下健三)의 작품으로, 1960년대에 지어졌다. 전후 시대 일본의 브루탈리즘(Brutalism) 건축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바지선 형태의 디자인에 현대적인 재료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체처럼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는 콘크리트 매스가 가운데 자리하고 이를 네 개의 구조물이 사방에서 받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중앙으로 진입로와 같은 레벨로 스포츠헤이 펼쳐져 있다.

2014년 누수로 지붕을 지탱하는 서스펜션 케이블이 녹슬면서 건물은 폐쇄되었고 철거 논의가 시작되었다. 독특한 구조 때문에 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는 인수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입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하였다.

철거 결정이 정해지자 일본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건축가들은 “공청회나 공개토론 등 그 어떤 공개 협의 과정도 없이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건축의 철거가 도시의 매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철거 반대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기념물기금(World Monuments Fund: WMF)도 “이 건축유산은 미래의 시민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청원서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22년 4월 도쿄 도심의 나가긴 캡슐 타워의 철거가 결정되면서 앞서 논란이 일었다. 1972년 완공된 이 건축은 구로카와 기쇼(黒川紀章)의 메타볼리즘(metabolism)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불렸으나, 철거 반대와 재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가가와현립체육관 내외부

출처: WMF 홈페이지. https://www.wmf.org/save-kagawa-gymnasium?utm_medium=website&utm_source=archdaily.com(검색일: 2022.3.2.)

©Noriyuki Kawanishi